DYNAUDIO
DYNAUDIO

음악의 진수를 호흡하기 위한 산소 같은 존재

Dynaudio Confidence C1 Signature

_글 김남

멋진 제품들이 기라성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럭셔리한 제품은 또 처음 봤다. 마치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멤버 같다.

원래 C1은 북셀프로는 거만하게도 대형 사운드 스테이지로 큰 풍모를 자랑한다는 평을 받으며 유럽의 전문지에서도 별 5개를 받아 온 제품이다. 고급의 소형 명기로 이미 자리 매김을 해온 지 몇 해 만에 다시 시그너처로 명칭을 바꾸면서 개량을 가했다.

다인오디오의 라인업에서도 초고가의 몇 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최상위 라인이 컨피던스 시리즈이다. 다인오디오에서 컨피던스 시리즈 제품이라고 하면 다인오디오의 사실상 간판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 첫 번째인 C1은 소형기로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절찬을 받은 제품인 것이다.

이미 컨피던스 시리즈에 투입된 각종 기술이나 유닛들의 자랑거리는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MSP 콘 미드 · 우퍼와 에소타 2 트위터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된다. 에소타 2 트위터는 현존하는 트위터 중 최고 대열에 올라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 다인오디오의 초고가 모델들에 채용되어 왔다.

다인오디오의 제품은 트위터나 우퍼 등 유닛은 물론이고 인클로저까지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트위터 하나만 해도 수십 년 간 무수한 개선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1977년 설립된 이 회사는 모델마다 고유한 설계를 하고, 맞춤형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설계를 최적화한다는 것이 공정의 캐치프레이즈다.

사파이어와 컨시퀀스 얼티밋 에디션의 제작 경험과 높은 수준의 파인 튜닝이 C1 시그너처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독특한 슬림 캐비닛에 고밀도의 멀티플 레이어 배플은 낮은 공명과 유닛을 캐비닛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네오디뮴 마그넷을 사용하고 정교한 직물 돔에 최적화된 다인오디오만의 정밀 특수 코팅을 한 에소타 2 트위터, 그리고 뛰어난 경량에 방열이 빠른 알루미늄 보이스 코일과 캡톤 포머를 채용한 고성능의 미드 · 베이스 드라이버가 사용되었다. 또한 내부 배선재를 업그레이드하고, 최고 품질의 1차 오더의 크로스오버를 이 스피커를 위해 최적화했다.

하지만 이런 자랑거리는 사실 들을 때뿐이고 곧 잊혀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인클로저의 형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뿐인 것이다. 이 제품은 결국 인클로저를 럭셔리하게 개선하고, 세부적으

우선 또렷하고 깨끗한 고역이 기본이다. 중역은 생각과 달리 두께감을 기반으로 해 자연스럽고 청결하다. 해상력이 두드러지면서도 매끄럽기 짝이 없다. 저역 역시 깊고 섬세하며 깨끗한데, 전체적으로 중립적이고 밸런스가 좋다. 실제 음에 상당히 가까운 소리, 그러면서도 다이내믹과 공간감이 훌륭하다.

로 더 정밀한 튜닝을 해 사운드의 개선을 꽤했다.

본 시청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인클로저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인클로저, 가만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정말 예쁘다. 전작인 C1과 형태는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더 완만하게 곡선화가 되었으며, 약간 밋밋했던 컬러 마감을 완전히 혁신했다. 시그너처 모델은 특별한 2종류의 컬러 마감이 있는데, 다크 브라운 모카와 다크 레드 보르도 마감이며, 모두 전작에는 없었던 마감으로 시각을 단번에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감도는 85dB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충분한 앰프로 구동하지 않는다면 제 성능을 뽑아낼 수 없다는 신호인 셈이다. 폭발적인 다이내믹을 맛볼 수 있는 앰프를 쓰기만 한다면 소형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사운드를 맛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기기인 것이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 마련한 앰프는 하이엔드 중의 하이엔드라고도 볼 수 있는 다질의 NHB-18NS 프리앰프와 NHB-108 모델 원 파워 앰프. 이만하면 스피커의 요구는 충분히 충족한 셈이다.

이미 전작인 C1에 대한 시청기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한결같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탁월한 리듬 능력과 통찰력 넘치는 중역, 달콤한 고역이라는 것인데, 외지의 평가서인 만큼 다소 해석이 어렵다.

우리 식으로 재해석을 해보겠다. 물론 시청을 마친 다음의 종합 평가이다. 우선 또렷하고 깨끗한 고역이 기본이다. 중역은 생각과 달리 두께감을 기반으로 해 자연스럽고 청결하다. 해상력이 두드러지면서도 매끄럽기 짝이 없다. 저역 역시 깊고 섬세하며 깨끗한데, 전체적으로 중립적이고 밸런스가 좋다. 실제 음에 상당히 가까운 소리, 그러면서도 다이내믹과 공간감이 훌륭하다.

여기에 칭찬을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아무리 복잡한 음을 대음량으로 재생해도 잘 소화해 내며, 난해한 곡도 쉽고 친절하게 풀어내준다는 것이다. 팔레스트리나 같은 중세의 성가곡은 보통의 기기로 들어 보면 금방 하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보컬이 서로 뒤섞이면서 아카펠라로 부르는 곡이니 자칫하면 소란스러워지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력이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보컬을 위시해 대편성곡은 차라리 이런 성능 좋은 소형기로 들을 때 그 맛이 우러나온다.

단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스탠드가 된다. 자금을 절약하기 위해 전용 스탠드를 쓰지 않고 보편적인 사제품을 쓸 때의 단점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할 수가 있다.

이 제품은 럭셔리한 제품이라 해서 그냥 멋 부리기로 생각 없이 사용할 수준이 아니다. 다인오디오 컨피던스의 수준을 잘 이해하고, 규모가 약간 작더라도 정밀하며 음악의 진수를 호흡하고자 하는 전문가급의 수준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어울릴 것이다. A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1,200만원(스탠드 별매) · **구성** : 2웨이 2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재생주파수대역** : 45Hz-22kHz(±3dB) · **크로스오버 주파수** : 1800Hz · **임피던스** : 4Ω · **출력음압레벨** : 85dB/2.83V/m · **파워 핸들링** : 170W · **크기(WHD)** : 44.5×20×43cm · **무게** : 10.9kg